

「 약속의 땅을 향한 행복한 동행 」

다비드 • 하다스 • 담희 • 단아 • 도하 • 다운

shalom! 예루살렘에서 문안드립니다. 먼저 이 계절을 맞으며 시편 133편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보라 형제  
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혈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바라기는 혈몬의 이슬이 시온을 적실같이 여호와와 복이 메마르고 척박한 우리의 삶 속 구석구석을 축축이 적실 수 있  
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지난 한 달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저희는 얼마 전 안식년을 마치고 다시 현장에 들어와 1  
년을 맞았습니다. 2기 사역을 진행하며 현장에서 느끼는 시간의 흐름은 더욱 빨라지고 있다는 생각이듭니다. 그 시간의  
흐름들 속에서 예전보다 더 확고한 사역과 안정적인 생활 패턴이 올 한해 자리 잡힐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바람으로 2월을 보냈고 오는 3월을 기대감 속에서 맞으려합니다.

### ■ 살아가는 이야기

지난 1월 중순에는 모교회인 늘사랑교회에서 새로운 종족 입양을 위한 정탐사역으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  
으로 교회적으로는 앞으로 이 땅의 두 민족 유대인과 팔레스타인을 복음으로 섬길 수 있는 또 하나의 길이 열리게 되  
었습니다. 이로 인한 책임감과 부담도 있지만 무엇보다 교회가 이 땅을 선택하고 앞으로 더 집중한다는 의미에서 전개  
될 사역에 대한 동력을 얻게 되어 감사하고 또 기대감을 갖습니다. 정탐팀 방문에 이어 늘사랑교회 내에 있는 기독교  
교에서 졸업 대상자들과 스텝들이 비전트립으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사실 이 땅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지순례를 목  
적으로 찾는 땅입니다. 1년이면 보통 4만 5천 명 가량의 한국인들이 이 땅을 방문하게 되는데 방문자들의 연령대가  
대부분은 중년 내지는 고 연령대이다 보니 청소년들의 방문은 왠지 낯선 풍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살이라도  
더 젊은 때 이 땅을 방문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복된 것인지 이 땅을 찾으신 분들이라면 모두가 공감하실  
겁니다. 이번 늘사랑교회의 방문을 통하여 저희 가족들도 오랜만에 그리운 얼굴들 만나 귀한 교제 나누며 행복한 시간  
을 가졌습니다. 주 안에서 서로 문안하고 더 나아가 현장 방문을 통하여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위  
로와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지난 2월 저희 가정 그렇게 위로 받고 격려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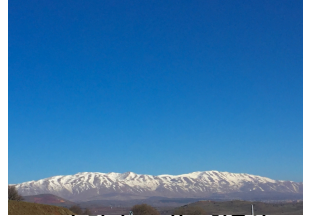
### ■ 새로운 도전과 섬김의 자리 이야기

갈릴리 지역은 예수님의 주 사역 무대였으며 공관복음서의 상당수의 이야기들은 바로 이 곳에서 쓰였습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이나 지금이나 갈릴리는 풍요롭지만 빈곤율이 높은 지역이고 과거 이방의 갈릴  
리라는 호명처럼 사회적 소외계층과 다양한 소수의 그룹들이 공존하고 있는 땅입니다. 감사한 것은 예전과  
동일하게 지금도 복음에 대한 수용성이 다른 지역들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고 나름 부흥의 때를 맞고 있  
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예루살렘)에만 편중되어 있는 인력 그리고 관련 기관들의  
부재는 갈릴리 지역에 대한 관심과 새로운 도전으로 저희 가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속에서 수많은  
가능성들을 보고 있으며 앞으로 전개될 사역에도 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기도 서신을 통해 간단하게나마 나누었던 2기 사역의 새로운 장으로 코리엘(Koriel) 사역을 생각하며 요즘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 텀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부터 마음의 부담으로 다가왔던 갈릴리 지역을 섬기기 원  
하는 마음에서 지역 리서치와 실행 가능한 사역 콘텐츠를 구상하며 나름 준비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몇몇의 현실적인 어려움들에 직면하면서 잠시 주춤했고 나중에 여건이 마련되면 그 때 시작하는 것으로 생  
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부담과 기대감 속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이제 믿음으로 첫 걸음  
을 내딛으려 합니다. 여전히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존재하지만 주신 마음을 내려놓을 수 없고 또 필요한 일  
이라 여겨 본격적인 사역 준비와 그동안 계획했던 일들을 하나하나 실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갈릴리  
지역에 작은 원룸을 구해 ‘코리엘 쉼터’(Koriel Shelter)를 조그맣게 열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인도하심과 필요한 만남 그리고 재정이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 유대인 이야기

전통적으로 유대인에 대한 이방인들의 인식과 평가는 역사 속에서 늘 부정적인 측면이 긍정적인 측면보다 더 많았습  
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그러한 부정적인 인식은 여전히 이방인들 속에 자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현장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같은 유대인을 평가할 때조차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  
다. 그러면서 이러한 유대인의 민족적 특성을 거론하며 ‘짜바르’를 들어 설명 합니다. ‘짜바르’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본토 유대인을 일컫는 말로 부채꼴 모양의 ‘선인장의 열매’를 지칭합니다. 아시아시피 선인장에는 수많은 가시들이 돋  
아나 있습니다. 그래서 맨손으로는 쉽게 만질 수도 없고 다루기는 부담스러운 그래서 관상용으로 접촉을 기피하는 식  
물입니다. 유대인들은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가서기에도 부담스럽고 또 다루기도 어렵지만 그래서 수많은 시도들  
속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지만 마침내 가시를 극복하고 나면 선인장 꼭지에 달린 달콤한 열매 ‘짜바르’를 맛볼 수 있다  
고요. 저희의 바람은 가시에 찔릴 것을 두려워하여 다가서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내 ‘짜바르’의 달콤함을 경험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 더 나아가 수많은 선인장 열매 ‘짜바르’(짜바르의 복수형)를 주께 드릴 열매로 가득 안고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더욱 소망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게도 짜바리를 맛보게 하소서”**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 멀리 보이는 헐몬산



내 차녀에게 (신6:7)



늘사랑 정탐팀



늘사랑 기독교학교 비전트립



갈릴리 마을



‘짜바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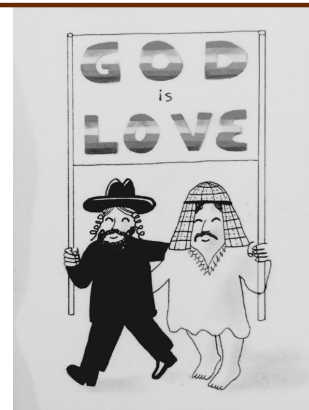


요압 아버지 가정방문

## 「 기도제목 」 “ Love One Another ” (John15:12)

1. 보내신 자리에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충성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2. 3월 말 이사를 하게 되는데 예비된 집과 주인 그리고 이웃들을 만날 수 있도록
3. 2017년 코리엘(Koriel) 사역의 준비 진행 그리고 필요한 재정이 채워질 수 있도록
4. 현장 사역과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는데 가장 적합한 Status(비자문제)가 마련 되도록
5. 가족 구성원 모두 건강(아이들 비염)하게 이 계절(우기)을 보낼 수 있도록

※ 여러분의 기도제목을 보내주시면 이곳에서 저희도 함께 중보 하겠습니다.



### 「 후원정보 」

- 일반헌금: 다비드/하다스(담희, 단아, 도하, 다온)
- 외환(하나)은행: 181-04-01159-983
- 예금주: 침\*해\*선 / TEL : 02-3775-4471
- 목적헌금: 타마르/코리엘 프로젝트
- 외환(하나)은행: 990-007955-919
- 예금주: 침\*해\*선 / TEL : 02-3775-4471
- 1) 재정담당 : 최은섭 (010-5334-7856),  
E-MAIL: 0903ces@naver.com
- 2) 문서담당 : 박은성 (010-3745-2025),  
E-MAIL: mindlle-1@hanmail.net

### 「 연락처 」

※ 주 소 :  
Eli Tavin 22/10, Jerusalem 9770001, Israel.  
JAESUK JUNG (이 주소는 2017년 3월 10일까지 유효합니다)

※ 연락처 :  
■ 휴대폰: +972-(0)58-6623513 (다비드)  
+972-(0)58-4623514 (하다스)  
■ 집전화 : 070-8632-0432  
■ E-MAIL: korielpro@gmail.com

# 이스라엘로 보내는 소포는 우체국 일반 소포(예제: CP123456789KR)만 가능합니다. EMS는 세금문제로 어려움이 많습니다.